

## 6주년 호남예술제

### ‘문화백년대계’ 한국 예술인의 산실

1956년 창설 ... 수많은 스타 배출 전국 대표 종합예술축제  
광주 무등경기장 개막식 10만명 몰리고 금남로 시가행진도

올해 행사 22일~5월 28일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지적 교양을 높임으로써 문화백년대계에 기여하고자 호남예술제 어린이부를 개최합니다. 어린이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956년 4월 1일자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의 사고(社告) 내용이다. 6월13일부터 3일간 동방극장(옛 무등극장)과 서석초등학교에서 열린 첫 행사는 무용, 동극, 글짓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고 참가자는 1000여명에 달했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1956년 시작한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0돌을 맞았다.

그동안 참여 인원만 56만명에 이르는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특히 의재 허

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변변한 문화 행사가 흔치 않았던 1970년대까지 호남예술제는 참가자들 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축제 자리잡았다. 특히 옛 전남도청앞에서 광주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시가행진은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고 개막식에는 10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호남예술제가 키워낸 인재들은 전국에서 또 다른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자로, 예술가로 우뚝섰다. 또 젊은 예술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다.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여수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대모로 불리는 김남윤, 국내 바로크 바이올린의 선구자 김진씨 등이 호

남예술제 출신이다. 정애련·강숙자·서영화씨 등 전남대와 조선대 교수 대부분도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다. 최근에는 젊은 연주자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인 최초로 제네바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씨 등이 대표적이다.

무용 부문에서는 마린스키발레단에 입단한 김기민 등 스타 발레타를 키워낸 김선희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무용원장을 비롯해 김미숙·임지영·박준희씨 등 조선대 교수 3명이 모두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또 신순주 현 광주시립무용단장을 비롯, 박경숙·이영애·김유미씨 등 전·현직 무용단장들이 호남예술제를 거쳐갔다.

한편 제60회 호남예술제는 오는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무용 부문을 시작으로 열린 경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성인 부문(한국 무용, 국악)을 신설, 문호를 확대했다.

호남예술제 창설 당시의 이상이었었던 ‘문화백년대계의 찬란한 꿈’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변변한 문화행사가 없었던 1970년대까지 호남예술제는 참가자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축제였다. 1970년 광주공설운동장(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호남예술제 개막식은 가장행렬과 공수부대 낙하 시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장관을 이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014년 열린 제59회 호남예술제 현대 무용 경연.



1964년 제9회 호남예술제 경연이 열린 동방극장(옛 무등시내마)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여고생들.

### ‘차캠프 핵심’ 흥문종·서병수·유정복 수사 野 경남위원장들 ‘성완중 1억’ 흥준표 고발

정치권, 대선자금 수사 공방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착수된 가운데 여야는 상대의 대선자금을 조사하자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3·4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기존의 경남기업 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과 대선 기간인 2011년~2012년에 흥준표 경남지사와 흥문종 의원, 서병수·

U대회 성화 백두산·무등산 채화  
임진각서 합화 추진 ▶2면

세월호 1년 현장 떠나지 못하는  
故 양대홍 사무장 가족 ▶7면

유정복 시장 등 유력 정치인 4명에게 8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실체를 우선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8억원 수수 의혹 당사자들은 물론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들은 이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지역위원장 8명이 이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흥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역위원장 8인은 이날 오전 허성무 창원성산구 지역위원장을 고발인물로

창원지검에 흥 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수사와 맞물려 여야 정치권도 이날 대통령선거 자금 수사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여권의 대선자금 의혹이 연관된 이번 사건을 ‘진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자, 이에 맞서 여당 지도부가 지난 2012년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고 반격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지난 2012년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가 아무런 근거나 혐의도 없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가리기 위한 불구신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 새정치, 내년 총선 전략공천 20% 유지

경선 ‘국민 60%+ 당원 40%’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경선을 ‘국민 60%+ 권리당원 40%’ 비율로 치르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유지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의 활동을 상시 평가, 이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단장 원혜영)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 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기존 30%의 전략공천 비율을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략공천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 수를 2~3인으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60점)와 여론조사(40점)로 이뤄지고, 예비후보자 간의 점수 격차가 경우 단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와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를 위해 15인 이하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하되 절반 이상은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천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의무 공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여성참여확대위원회(가칭)’를 구성기로 했다. 자격 심사도 강화했다. 형사범 가운데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을 받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투명한 그러나 매혹적으로 빛나는 헤라 셀 에센스**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나드세요  
투명함과 깊이, 순수함과 찬란함 사이를-  
피부를 가장 잘 아는, 몸속 물을 담은 셀 에센스가  
당신에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CELL ESSENCE  
Cell-Bio Fluid Sync™  
100 ml / 3.3 fl. oz.  
100 ml / 3.3 fl. oz.

HERA

\*유명백화점이나 마요래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